

아동과 청소년의 공감 및 죄책감과 도움행동 간의 관계에서 감사의 매개적 역할

The Mediating Role of Gratitude in the Influenc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Empathy and Guilt on Helping Behavior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석사한지영*

부교수 김정민**

박사과정 김재정

Dept. of Child Studies, Myongji Univ.

Master : Han, Ji-Young

Associate Professor : Kim, Jung-Min

Doctoral Course : Kim, Jae-J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and adolescents' moral emotions - empathy, guilt and gratitude - and helping behavior. For this study, questionnaires on empathy, guilt, gratitude and helping behavior were administered to 938 students in the 4th, 5th, 7th, 8th, 10th and 11th grades attendi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ente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Win 12.0.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by gender, empathy, guilt and helping behavior differed significantly, also, by grade, empathy, guilt, gratitude and helping behavior differed significantly. In addition, religion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mpathy, gratitude and helping behavior. Secondly, variables influencing helping behavior were found to differ by developmental stage. The variable influencing the helping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found to be empathic concern. For middle school students, guilt was found to influence their helping behavior, while for high school students, perspective-taking was found to be the key variable. Thirdly, gratitude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empathy(or guilt) and helping behavior.

▲주요어(Key Words) : 도덕적 정서(moral emotion), 공감(empathy), 죄책감(guilt), 감사(gratitude), 도움행동(helping behavior)

* 주저자 : 한지영(E-mail : jyhan7555@hanmail.net)

** 교신저자 : 김정민(E-mail : jmkim122@mju.ac.kr)

I. 서론

도움행동(helping behavior)이란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가리킨다(Bar-Tal, 1979). 도움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로 도덕적 추론 수준, 조망수용능력 등을 포함하는 사회인지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Bar-Tal & Raviv, 1982; Denham, 1986; Eisenberg et al., 1995; Vasta, Miller, & Ellis, 2004; Edwards & Ha, 2005; Park, 2012). 구체적으로, 도덕적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인 도덕적 추론은 정의(justice), 타인의 복지(others' welfare), 공평(fairness) 등과 같은 도덕적 원리들에 근거하여 도움행동을 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할수록 도우려는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인지적 특성들과 친사회적 혹은 도덕적 행동 간의 관계는 일관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isenberg et al., 1987; Eisenberg et al., 1991). 즉, 사회인지적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움행동의 잠재적 관련변인으로 도덕적 정서에 주목하였다. 도덕적 정서는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Hoffman, 1983). 도덕적 정서는 긍정적 범주와 부정적 범주로 구분되는데, 긍정적 범주에는 공감(또는 감정이입), 동정심, 흥미, 고양 등이 있으며, 부정적 범주에는 분노, 죄책감, 수치심, 혐오 등이 있다(Damon, 1988; Lickona, 2001; Tangney, Stuewig, & Mashek, 2007). 이들 도덕적 정서 가운데 공감과 죄책감은 도덕적 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Eisenberg, 2000). 공감(empathy)은 타인의 관점 및 역할을 수용하는 인지적 요소를 전제로 타인과 동일한 정서를 경험하는 정서적 요소를 포함한다(Lickona, 2001).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공감은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상해를 입히는 공격적 행동,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행동, 타인을 비난하거나 혹은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의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esure-Lester, 2000; Loudin, Loukas, & Robinson, 2003; Trommsdorff, Friedlmeier, & Mayer, 2007). 이와 같이 공감은 도덕적 행동과 관련하여 도덕적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제하는 효과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공감이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제한과 같은 소극적 경향 뿐 아니라 도움행동과 같은 적극적인 친사회적 행동 또한 예측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 다른 도덕적 정서인 죄책감(guilt)도 도움행동을 예측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죄책감은 개인의 내적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개인적인 반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긴장감, 후회, 자책 등을 수반하고 이후의 보상을 동기화하는 정서를 가리킨다(Tangney & Dearing, 2002). 이러한 죄책감은 수치심과 더불어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부적응적 정서로 간주되어 온 경향이 있다(Williams & Bybee, 1994; Song & Lee, 2010; Andrew, Jessica, & Karen, 2012). 반면, 죄책감은 수치심의 병리적 특성과는 달리 자신의 행동을 통제 혹은 조절하려는 성향을 포함한다(Tangney & Fischer, 1995; Tangney, 1998). 뿐만 아니라 죄책감 수준이 높을수록 덜 공격적이며,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보상 행동을 시도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ampman et al., 1987; Eisenberg & Fabes, 1991, 1995; Tangney, 1991; Zahn-Waxler et al., 1992; Eisenberg, 2000; Hoffman, 2000).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죄책감이 도움행동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더욱이 도움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은 난처한 지경에 처한 타인을 전제로 하므로 도움행동의 여부가 '타인'에게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죄책감 성향이 높은 경우, 도움행동 상황은 행동 수행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도움행동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정서로 공감과 죄책감 외에 감사성향(gratitude)을 추가하였다. 최근 감사성향은 도덕적 정서로서 도덕적 행동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강화를 제공한다는 것이 밝혀졌다(McCullough et al., 2001). 즉, 감사는 자신이 어떤 댓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친사회적인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므로, 타인의 복지와 관련이 있는 도덕적 행동을 수행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감사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최근 몇몇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었는데, 습관적으로 감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친사회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McCullough & Tsang, 2004; Kashdan, Uswatte, & Julian, 2006; Froh, Bono, & Emmons,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행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도덕적 정서로서의 감사가 타인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행동 경향성을 나타내므로 도움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도움행동을 5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는 도움행동의 하위 영역(조력, 증여, 협력, 친절, 동정)이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공감은 타인의 관점이나 역할을 수용하는 인지적인 요소와 타인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는 정서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지적

요인(관점 취하기, 상상하기)과 정서적 요인(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의 4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뉘어 살펴보았다.

한편, 앞에서 기술한 공감, 죄책감 및 감사성향을 포함하는 도덕적 정서가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정들은 발달 단계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어린 아동의 경우 공감의 관점 취하기 또는 상상하기와 같은 인지적 성향에 비해 공감적 관심 또는 개인적 고통과 같은 정서적 성향이 도움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는 공감의 인지적 성향 중 상상하기와 같이 복잡한 인지적 재구성을 요하는 변인들은 어린 아동들보다는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울 수 있다. 더욱이 기존 관련 선행연구들은 거의 대다수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정보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도덕적 정서가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고, 발달 단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더불어 아동과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대개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돌봄 성향이 두드러지며 관계지향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Mestre et al., 2009; Linda, 2011).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는 관계성에 기반을 둔 양육적 특성이 강조되고, 이러한 가치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관계적 도움행동에서 더 적극적일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돕기 실험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이 도왔으며, 특히 대상이 어린 아동일 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많이 도왔다는 결과가 있다(Midlarsky & Hannah, 1985; Kim, 2006). 반면에, 도움행동에 대한 성차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하는 연구들(Bar-tal & Raviv, 1982; Reysen & Ganz, 2006)도 있어서 도움행동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이 일관적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도덕적 정서와 도움행동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공감, 죄책감 및 감사성향을 포함하는 도덕적 정서가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정들은 종교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타인에 대한 사랑과 나눔을 강조하는 종교의 특성상 종교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이 종교의 영향을 받아 도움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감사를 종교를 지닌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로 보고 또한 종교심이 높은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의 영향으로 더 높은 수준의 감사를 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Walker & Pitts, 1998; Kwon, 2006). 그러나 선행연구들 중 아동과 청소년의 종교유무에 따른 도덕적 정서의 하위요인들(공감, 죄책감,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는 제한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종교유무에 따른 도덕적 정서(공감,

죄책감, 감사)와 도움행동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한편, 아동과 청소년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조망수용능력, 도덕 판단 등의 인지 수준이 발달되면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발달단계는 도덕적 정서의 발달 수준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도덕적 정서의 차이는 도움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공감, 죄책감, 감사)가 도움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공감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리고 죄책감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감사 성향이 각각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감사를 매개변인으로 선정한 것은 공감과 죄책감의 정도에 따라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Tangney & Fischer, 1995; Leith & Baumeister, 1998). 먼저 타인의 행동을 호의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감사 성향은 타인의 사고와 감정에 대한 공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보상하고자 하는 죄책감 성향은 타인의 호의적 행동에 대해 보상하고자 하는 감사 성향과 유사한 반응 패턴(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이 공감과 죄책감이 감사 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이어 앞서 기술한 바대로 감사 성향이 도움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아동 및 청소년의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도덕적 정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중 공감, 죄책감 및 감사를 중심으로 발달 단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도덕적 정서 중 공감과 죄책감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감사가 매개 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과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종교 유무)에 따라 도덕적 정서(공감, 죄책감, 감사)와 도움행동은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공감, 죄책감, 감사)가 도움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아동과 청소년의 공감 및 죄책감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도움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초등학교 2개교의 4학년생 171명, 5학년생 165명, 중학교 2개교의 1학년생 141명, 2학년생 158명, 고등학교 1개교의 1학년 152명, 2학년 151명을 포함한 총 93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결과 분석에 사용된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Table 1> 참조).

2. 연구도구

1) 공감 척도

Davis(1980)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An(2000)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및 '개인적 고통' 등 4개의 하위 영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평가는 Likert식 5점 척도 '전혀 아니다'(1점), '대체로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4였으며, 하위 영역 중 관점취하기의 Cronbach's α 값은 .84, 상상하기의 Cronbach's α 값은 .66, 공감적 관심의 Cronbach's α 값은 .68, 개인적 고통의 Cronbach's α 값은 .63이었다.

2) 죄책감 척도

Tangney, Wagner, and Gramzow(1989)가 개발한 자의

식 정서 척도(Test of Self-Conscious Affect: TOSCA) 중 아동용 척도(TOSCA-C, 1990)와 청소년용 척도(TOSCA-Adol, 1991)를 Ryu(199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살펴보기 위해 12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평가는 Likert식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1점)에서 '아주 그럴 것이다'(5점)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4였다.

3) 감사성향 척도

McCullough, Emmons, and Tsang(2002)이 개발한 감사성향 척도(Gratitude Questionnaire-6: GQ-6)를 kwon(2006)이 번안, 타당화한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K-GQ-6)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감사성향의 강도, 빈도, 범위 및 밀도를 측정하는 총 6문항으로 되어 있다. 문항 평가는 7점 Likert식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7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4였다.

4) 도움행동 척도

Bar-Tal and Raviv(1979)가 개발한 돕기 상황 검사(Consistency of Helping Behavior Measures)를 Cheon(199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조력, 증여, 협력, 친절, 동정의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평가는 '아니다'(1점), '한 번 정도'(2점), '두 번 이상'(3점), '가끔(4점), '자주'(5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2였고, 하위 영역 중 조력의 Cronbach's α 값은 .74, 증여의 Cronbach's α 값은 .64, 협력의 Cronbach's α 값은 .73, 친절의 Cronbach's α 값은 .70, 동정의 Cronbach's α 값은 .71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938)

Variable	Classification	Frequency(%)
Grade	Elementary 4th	171(18.2)
	Elementary 5th	165(17.6)
	Middle school 1th	141(15.0)
	Middle school 2th	158(16.8)
	High school 1th	152(16.2)
	High school 2th	151(16.1)
Gender	Male	393(41.9)
	Female	545(58.1)
Religion	Religion	499(53.2)
	No Religion	432(46.1)

3. 연구절차

1) 예비 조사

본 조사에 앞서 2011년 9월 22일~25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5학년생, 중학교 1·2학년생, 고등학교 1·2학년생 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과정을 통해 문항의 이해와 답변의 원활함을 확인하고, 예비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는 수정 없이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1년 9월 2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서울 및 경기도의 초등학교 4·5학년생, 중학교 1·2학년생, 고등학교 1·2학년생 총 1,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담임교사 및 연구자를 통해 배부 및 회수되었다. 이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기입된 질문지를 제외한 938부를 최종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질문지에 대한 응답 시간은 약 20~2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4. 자료 분석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t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동시중다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 및 위계적(Hierarchical)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동과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종교 유무)에 따른 도덕적 정서(공감, 죄책감, 감사)와 도움행동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도덕적 정서(공감, 죄책감, 감사)와 도움행동의 차이

아동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도덕적 정서(공감, 죄책감, 감사)와 도움행동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전체 공감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t=-11.30, p<.001$), 여학생($M=68.59, SD=9.45$)이 남학생($M=61.14, SD=10.45$)보다 전체 공감 점수가 높았다. 공감의 하위 영역인 관점 취하기($t=-13.19, p<.001$), 상상하기($t=-4.42, p<.001$), 공감적 관심($t=-5.40, p<.001$), 개인적 고통($t=-7.52, p<.001$)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공감 능력이 높았다. 아동과 청소년의 죄책감 또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t=-3.82, p<.001$), 여학생($M=43.71, SD=7.31$)이 남학생($M=41.73, SD=8.22$)보다 죄책감 점수가 높았다. 반면, 아동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Table 2. Difference in Moral Emotion and Helping Behavior by Gender

Variables	Male	Female	t
	M(SD)	M(SD)	
Empathy	61.14(10.45)	68.59(9.45)	-11.30***
Perspective taking	14.59(4.40)	18.30(4.12)	-13.19***
Fantasy	17.26(2.94)	18.07(2.52)	-4.42***
Empathic concern	15.66(3.36)	16.88(3.47)	-5.40***
Personal distress	13.66(3.67)	15.41(3.40)	-7.52***
Guilt	41.73(8.22)	43.71(7.31)	3.82***
Gratitude	25.49(3.69)	25.72(3.30)	-1.00
Helping behavior	81.99(19.50)	87.47(18.74)	-4.26***
Helping	16.77(5.02)	18.09(4.69)	-4.07***
Donation	14.42(4.49)	14.80(4.01)	-1.33
Cooperation	14.36(4.92)	14.84(4.78)	-1.50
Kindness	18.95(4.62)	20.45(4.42)	-5.04***
Sympathy	16.82(4.85)	18.58(4.51)	-5.70***

*** $p < .001$

감사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전체 도움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t=-4.26, p<.001$), 여학생($M=87.47, SD=18.74$)이 남학생($M=81.99, SD=19.50$)보다 전체 도움행동 점수가 높았다. 도움행동의 하위 영역인 조력($t=-4.07, p<.001$), 친절($t=-5.04, p<.001$), 동정($t=-5.70, p<.001$)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해당 영역의 도움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년에 따른 도덕적 정서(공감, 죄책감, 감사)와 도움행동의 차이

학년에 따라 도덕적 정서(공감, 죄책감, 감사)와 도움행동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Sché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전체 공감의 경우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6.86, p<.001$), 고등학생($M=67.07, SD=9.23$)이 초

등학생($M=63.98, SD=11.88$)보다 공감 점수가 높았다. 또한 죄책감의 경우에도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25.82, p<.001$), 초등학생($M=45.22, SD=8.87$)이 중학생($M=41.95, SD=7.13$)과 고등학생($M=41.20, SD=6.28$)보다 죄책감 점수가 높았다. 감사성향 역시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15.70, p<.001$), 초등학생($M=26.46, SD=3.64$)이 중학생($M=25.17, SD=3.24$)과 고등학생($M=25.14, SD=3.30$)보다 감사성향 점수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전체 도움행동에서도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3.30, p<.05$), 초등학생($M=87.22, SD=21.67$)이 중학생($M=83.38, SD=19.57$)보다 도움행동 점수가 높았다.

3) 종교 유무에 따른 도덕적 정서(공감, 죄책감, 감사)와 도움행동의 차이

아동과 청소년의 종교 유무에 따라 도덕적 정서(공감, 죄책감, 감사)와 도움행동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

Table 3. Difference in Moral Emotion and Helping Behavior by Grade

	Grade	M(SD)	F	Schéffe		Grade	M(SD)	F	Schéffe
Empathy	Elementary	63.98(11.88)		a	Helping behavior	Elementary	87.22(21.67)		a
	Middle school	65.56(9.93)	6.86**	ab		Middle school	83.38(19.57)	3.30 *	b
	High school	67.07(9.23)		b		High school	84.64(15.52)		ab
Perspective taking	Elementary	16.05(4.94)		a	Helping	Elementary	17.74(5.30)		a
	Middle school	16.85(4.39)	7.23**	ab		Middle school	17.28(5.02)	.70	a
	High school	17.42(4.35)		b		High school	17.54(4.18)		a
Fantasy	Elementary	17.66(3.08)		a	Donation	Elementary	15.20(4.75)		a
	Middle school	17.63(2.58)	1.02	a		Middle school	14.17(4.09)	5.03 *	b
	High school	17.92(2.46)		a		High school	14.49(3.60)		ab
Empathic concern	Elementary	16.06(4.05)		a	Cooperation	Elementary	15.91(5.35)		a
	Middle school	16.45(3.08)	2.27	a		Middle school	14.07(4.70)	19.05 ***	b
	High school	16.63(3.12)		a		High school	13.79(4.03)		b
Personal distress	Elementary	14.35(3.81)		a	Kindness	Elementary	19.29(4.95)		a
	Middle school	14.61(3.49)	3.64*	ab		Middle school	19.65(4.50)	6.73 **	a
	High school	15.11(3.50)		b		High school	20.58(4.08)		b
Guilt	Elementary	45.22(8.87)		a	Sympathy	Elementary	18.10(4.50)		a
	Middle school	41.95(7.13)	25.82***	b		Middle school	17.32(4.89)	2.67	a
	High school	41.20(6.28)		b		High school	18.10(4.23)		a
Gratitude	Elementary	26.46(3.64)		a					
	Middle school	25.17(3.24)	15.70***	b					
	High school	25.14(3.30)		b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 Difference in Moral Emotion and Helping Behavior by Religion

Variables	Religion	No Religion	t
	M(SD)	M(SD)	
Empathy	66.20(10.74)	64.70(10.22)	2.16*
Perspective taking	16.93(4.66)	16.56(4.55)	1.20
Fantasy	17.98(2.78)	17.44(2.63)	3.07**
Empathic concern	16.59(3.73)	16.11(3.15)	2.12*
Personal distress	14.80(3.70)	14.58(3.52)	.91
Guilt	43.24(7.98)	42.53(7.40)	1.41
Gratitude	26.01(3.43)	25.21(3.44)	3.55***
Helping behavior	88.18(19.46)	81.77(18.40)	5.11***
Helping	17.94(4.97)	17.10(4.69)	2.62**
Donation	15.20(4.31)	14.03(4.02)	4.24***
Cooperation	15.38(4.96)	13.81(4.55)	5.05***
Kindness	20.32(4.62)	19.23(4.44)	3.65***
Sympathy	18.54(4.72)	17.04(4.61)	4.90***

* $p < .05$, ** $p < .01$, *** $p < .001$

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아동과 청소년의 종교 유무에 따라 전체 공감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2.16$, $p<.05$). 즉, 종교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M=66.20$, $SD=10.74$)이 종교가 없는 아동과 청소년($M=64.70$, $SD=10.22$)보다 전체 공감 점수가 높았으며, 공감의 하위 영역 중 상상하기($t=3.07$, $p<.01$)와 공감적 관심($t=2.12$,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관점취하기와 개인적 고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종교 유무에 따라 죄책감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아동과 청소년의 종교 유무에 따라 감사성향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t=3.55$, $p<.001$), 종교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M=26.01$, $SD=3.43$)이 종교가 없는 아동과 청소년($M=25.21$, $SD=3.44$)보다 감사성향 점수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종교 유무에 따라 전체 도움행동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t=5.11$, $p<.001$), 종교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M=88.18$, $SD=19.46$)이 종교가 없는 아동과 청소년($M=81.77$, $SD=18.40$)보다 도움행동 점수가 높았다. 도움행동의 하위 영역인 조력($t=2.62$, $p<.001$), 증여($t=4.24$, $p<.001$), 협력($t=5.05$, $p<.001$), 친절($t=3.65$, $p<.001$), 동정($t=4.90$, $p<.001$)에서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종교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종교가 없는 아동과 청소년보다 각 하위 영역별 점수가 높았다.

2.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공감, 죄책감, 감사)가 도움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도덕적 정서(공감, 죄책감, 감사)와 도움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아동과 청소년의 도움행동에 미치는 도덕적 정서(공감, 죄책감, 감사)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의 도움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상관관계분석에서 도움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또한 종교 유무를 가변수로 독립변수에 추가 투입하여 동시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1) 초등학생의 도덕적 정서(공감, 죄책감, 감사)가 도움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초등학생의 도덕적 정서(공감, 죄책감, 감사)가 도움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동시중다회귀 분석 Durbin-Watson 검증 결과, Durbin-Watson 계수는 1.492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는 .50-.85로 .1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VIF)는 1.03-1.93로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중다회귀분석 결과, 도덕적 정서는 초등학생의 도움행동의 38%를 예언하였다. 공감적 관심($\beta=.31$, $p<.001$)의 설명력이 가장 컸고, 그 다음

Table 5. Correlation of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												
2	.90***	-											
3	.85***	.72***	-										
4	.83***	.67***	.70***	-									
5	.82***	.70***	.59***	.52***	-								
6	.89***	.77***	.67***	.65***	.71***	-							
7	.48***	.44***	.36***	.35***	.44***	.49***	-						
8	.42***	.39***	.32***	.27***	.38***	.42***	.85***	-					
9	.39***	.37***	.24***	.23***	.40***	.43***	.64***	.40***	-				
10	.43***	.38***	.32***	.35***	.37***	.43***	.73***	.48***	.43***	-			
11	.20***	.17***	.17***	.17***	.17***	.18***	.68***	.44***	.21***	.27***	-		
12	.36***	.30***	.24***	.32***	.31***	.36***	.49***	.33***	.44***	.47***	.23***	-	
13	.36***	.31***	.32***	.33***	.26***	.31***	.25***	.21***	.17***	.24***	.11**	.28***	-

1. Helping behavior, 2. Helping, 3. Donation, 4. Cooperation, 5. Kindness, 6. Sympathy 7. Empathy, 8. Perspective taking, 9. Fantasy, 10. Empathic concern, 11. Personal distress 12. Guilt, 13. Gratitude

** $p < .01$, *** $p < .001$

Table 6. The Relative Influenc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oral Emotion on Helping Behavio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R ²	F
Elementary school students' Helping behavior	Perspective taking	.75	.16	2.67**	.38	27.78***
	Fantasy	1.09	.15	2.58*		
	Empathic concern	1.20	.31	5.07***		
	Personal distress	.07	.01	.22		
	Guilt	-.28	-.11	-1.94		
	Gratitude	1.40	.22	4.69***		
	Religion(with/without)	5.09	.11	2.50*		
Middle school students' Helping behavior	Perspective taking	1.11	.24	4.06***	.41	27.45***
	Fantasy	1.33	.17	2.98**		
	Empathic concern	.85	.13	2.10*		
	Personal distress	-.29	-.05	-.95		
	Guilt	.77	.27	4.38***		
	Gratitude	.61	.10	1.92		
	Religion(with/without)	4.64	.12	2.44*		
High school students' Helping behavior	Perspective taking	.85	.23	3.88***	.28	15.42***
	Fantasy	1.04	.16	2.82**		
	Empathic concern	.31	.06	.99		
	Personal distress	-0.33	-.01	-.13		
	Guilt	.36	.14	2.44*		
	Gratitude	1.25	.25	4.85***		
	Religion(with/without)	2.42	.07	1.43		

* $p < .05$, ** $p < .01$, *** $p < .001$

으로는 감사성향($\beta=.22$, $p<.001$), 관점 취하기($\beta=.16$, $p<.01$), 상상하기($\beta=.15$, $p<.05$), 종교유무($\beta=.11$, $p<.05$) 순으로 초

등학생의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개인적 고통, 죄책감은 유의하지 않았다.

2) 중학생의 도덕적 정서(공감, 죄책감, 감사)가 도움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중학생의 도덕적 정서(공감, 죄책감, 감사)가 도움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동시중다회귀 분석 Durbin-Watson 검증 결과, Durbin-Watson 계수는 2.031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는 .57-.96로 .1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VIF)는 1.03-1.75로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중다회귀분석 결과, 도덕적 정서는 중학생의 도움행동의 41%를 예언하였다. 죄책감($\beta=.27, p<.001$)의 설명력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는 관점 취하기($\beta=.24, p<.001$), 상상하기($\beta=.17, p<.01$), 공감적 관심($\beta=.13, p<.05$), 종교유무($\beta=.12, p<.05$) 순으로 중학생의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개인적 고통, 감사성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3) 고등학생의 도덕적 정서(공감, 죄책감, 감사)가 도움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고등학생의 도덕적 정서(공감, 죄책감, 감사)가 도움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동시중다회귀 분석 Durbin-Watson 검증 결과, Durbin-Watson 계수는 1.842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는 .73-.94로 .1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VIF)는 1.05-1.35로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중다회귀분석 결과, 도덕적 정서는 고등학생의 도움행동의 28%를 예언하였다. 관점 취하기($\beta=.23, p<.001$)의 설명력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는 감사성향($\beta=.25, p<.001$), 상상하기($\beta=.16, p<.01$), 죄책감($\beta=.14, p<.05$) 순으로 고등학생의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종교유무는 유의하지 않았다.

3. 아동과 청소년의 공감 및 죄책감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의 매개효과

아동과 청소년의 감사가 공감과 도움행동, 죄책감과 도움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단순회귀분석 및 위계적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1) 아동과 청소년의 공감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의 매개효과

아동과 청소년의 공감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는 .93로 .1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VIF)는 1.07로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아동과 청소년의 공감이 도움행동의 하위 영역인 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공감이 매개변인인 감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25, p<.001$), 공감은 종속변인인 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44, p<.001$). 또한 매개변인인 감사는 조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함과($\beta=.22, p<.001$) 동시에, 공감이 조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다($\beta=.39, p<.001$). 그러므로 감사는 공감이 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obel(1982) 검증을 실시한 결과 $Z=5.03(p<.001)$ 로 나타나서 감사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공감이 도움행동의 하위 영역인 증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공감이 매개변인인 감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25, p<.001$), 공감은 종속변인인 증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38, p<.001$). 또한 매개변인인 감사는 증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함과($\beta=.24, p<.001$) 동시에, 공감이 증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다($\beta=.30, p<.001$). 그러므로 감사는 공감이 증여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obel(1982) 검증을 실시한 결과 $Z=6.04(p<.001)$ 로 나타나서 감사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공감이 도움행동의 하위 영역인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공감이 매개변인인 감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25, p<.001$), 공감은 종속변인인 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35, p<.001$). 또한 매개변인인 감사는 협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함과($\beta=.26, p<.001$) 동시에, 공감이 협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다($\beta=.28, p<.001$). 그러므로 감사는 공감이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obel(1982) 검증을 실시한 결과 $Z=5.73(p<.001)$ 로 나타나서 감사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감이 도움행동의 하위 영역인 친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공감이 매개변인인 감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25, p<.001$), 공감은 종속변인인 친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44, p<.001$). 또한 매개변인인 감사는 친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함과($\beta=.17, p<.001$) 동시에, 공감이 친절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다($\beta=.40, p<.001$). 그러므로 감사는 공감이 친절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Table 7. The Mediating Effect of Gratitude Concerning the Influence of Empathy on Children and Adolescents' Helping Behavior

	Step	Variable	β	R ²	F
Helping	1. Independent → Mediator	Empathy → Gratitude	.25***	.06	60.38***
	2. Independent → Dependent	Empathy → Helping	.44***	.19	219.42***
	3. Independent → Dependent	Empathy → Helping	.39***	.24	143.52***
	Mediator → Dependent	Gratitude → Helping	.22***		
Donation	1. Independent → Mediator	Empathy → Gratitude	.25***	.06	60.38***
	2. Independent → Dependent	Empathy → Donation	.38***	.13	134.17***
	3. Independent → Dependent	Empathy → Donation	.30**	.18	102.20***
	Mediator → Dependent	Gratitude → Donation	.24***		
Cooperation	1. Independent → Mediator	Empathy → Gratitude	.25***	.06	60.38***
	2. Independent → Dependent	Empathy → Cooperation	.35**	.12	124.08***
	3. Independent → Dependent	Empathy → Cooperation	.28**	.18	101.51***
	Mediator → Dependent	Gratitude → Cooperation	.26***		
Kindness	1. Independent → Mediator	Empathy → Gratitude	.25***	.06	60.38***
	2. Independent → Dependent	Empathy → Kindness	.44***	.19	221.72***
	3. Independent → Dependent	Empathy → Kindness	.40***	.22	131.42***
	Mediator → Dependent	Gratitude → Kindness	.17***		
Sympathy	1. Independent → Mediator	Empathy → Gratitude	.25***	.06	60.38***
	2. Independent → Dependent	Empathy → Sympathy	.49***	.24	292.79***
	3. Independent → Dependent	Empathy → Sympathy	.44***	.28	181.48***
	Mediator → Dependent	Gratitude → Sympathy	.21***		

*** $p < .001$

이에 따라 Sobel(1982) 검증을 실시한 결과 $Z=4.15(p<.001)$ 로 나타나서 감사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감에 도움행동의 하위 영역인 동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공감이 매개변인인 감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25, p<.001$), 공감은 종속변인인 동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49, p<.001$). 또한 매개변인인 감사는 동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함($\beta=.21, p<.001$) 동시에, 공감이 동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다($\beta=.44, p<.001$). 그러므로 감사는 공감이 동정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obel(1982) 검증을 실시한 결과 $Z=5.06(p<.001)$ 로 나타나서 감사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 2) 아동과 청소년의 죄책감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의 매개효과
아동과 청소년의 죄책감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는 .92로 .1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VIF)는 1.08로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아동과 청소년의 죄책감이 도움행동의 하위 영역인 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죄책감이 매개변인인 감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28, p<.001$), 죄책감은 종속변인인 조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25, p<.001$). 또한 매개변인인 감사는 조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함($\beta=.30, p<.001$) 동시에, 죄책감이 조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다($\beta=.23, p<.001$). 그러므로 감사는 죄책감이 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obel(1982) 검증을 실시한 결과 $Z=5.35(p<.001)$ 로 나타나서 감사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죄책감이 도움행동의 하위 영역인 증여에 미치는 영향에

Table 8. The Mediating Effect of Gratitude Concerning the Influence of Guilt on Children and Adolescents' Helping Behavior

	Step	Variable	β	R ²	F
Helping	1. Independent → Mediator	Guilt → Gratitude	.28***	.08	78.87***
	2. Independent → Dependent	Guilt → Helping	.30***	.09	92.14***
	3. Independent → Dependent	Guilt → Helping	.23***	.15	34.31***
	Mediator → Dependent	Gratitude → Helping	.25***		
Donation	1. Independent → Mediator	Guilt → Gratitude	.28***	.08	78.87***
	2. Independent → Dependent	Guilt → Donation	.24***	.06	55.75***
	3. Independent → Dependent	Guilt → Donation	.16***	.12	65.56***
	Mediator → Dependent	Gratitude → Donation	.27***		
Cooperation	1. Independent → Mediator	Guilt → Gratitude	.28***	.08	78.87***
	2. Independent → Dependent	Guilt → Cooperation	.32***	.10	104.18***
	3. Independent → Dependent	Guilt → Cooperation	.24***	.17	91.35***
	Mediator → Dependent	Gratitude → Cooperation	.26***		
Kindness	1. Independent → Mediator	Guilt → Gratitude	.28***	.08	78.87***
	2. Independent → Dependent	Guilt → Kindness	.31***	.10	100.46***
	3. Independent → Dependent	Guilt → Kindness	.26***	.13	69.25***
	Mediator → Dependent	Gratitude → Kindness	.19***		
Sympathy	1. Independent → Mediator	Guilt → Gratitude	.28***	.08	78.87***
	2. Independent → Dependent	Guilt → Sympathy	.36***	.13	139.14***
	3. Independent → Dependent	Guilt → Sympathy	.30***	.18	100.41***
	Mediator → Dependent	Gratitude → Sympathy	.23***		

* $p < .05$, ** $p < .01$, *** $p < .001$

대한 감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죄책감이 매개변인인 감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28$, $p < .001$), 죄책감은 종속변인인 증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24$, $p < .001$). 또한 매개변인인 감사는 증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함과($\beta=.27$, $p < .001$) 동시에, 죄책감이 증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다($\beta=.16$, $p < .001$). 그러므로 감사는 죄책감이 증여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obel(1982) 검증을 실시한 결과 $Z=6.54$ ($p < .001$)로 나타나서 감사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죄책감이 도움행동의 하위 영역인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죄책감이 매개변인인 감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28$, $p < .001$), 죄책감은 종속변인인 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32$, $p < .001$). 또한 매개변인인 감사는 협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함과($\beta=.26$, $p < .001$) 동시에, 죄책감이 협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다($\beta=.24$, $p < .001$). 그러므로 감사는 죄책감이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obel(1982) 검증을 실시한 결과 $Z=5.67$ ($p < .001$)로 나타나서 감사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죄책감이 도움행동의 하위 영역인 친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죄책감이 매개변인인 감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28$, $p < .001$), 죄책감은 종속변인인 친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31$, $p < .001$). 또한 매개변인인 감사는 친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함과($\beta=.19$, $p < .001$) 동시에, 죄책감이 친절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다($\beta=.26$, $p < .001$). 그러므로 감사는 죄책감이 친절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obel(1982) 검증을 실시한 결과 $Z=4.41$ ($p < .001$)로 나타나서 감사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죄책감이 도움행동의 하위 영역인 동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죄책감이 매개변인인 감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28$, $p < .001$), 죄책감은 종속

변인인 동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36, p<.001$). 또한 매개변인인 감사는 동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함과($\beta=.23, p<.001$) 동시에, 죄책감이 동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다($\beta=.30, p<.001$). 그러므로 감사는 죄책감이 동정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 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obel (1982) 검증을 실시한 결과 $Z=5.17(p<.001)$ 로 나타나서 감사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공감, 죄책감, 감사)와 도움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공감, 죄책감 및 도움행동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공감과 죄책감이 높았으며, 도움행동 또한 높게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타인의 심리적 관점과 사고의 동기를 이해하는 공감 정도가 높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과 관련하여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돌봄 성향이 두드러지며 관계지향적이라는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Mestre et al., 2009; Linda, 2011). 더욱이 이러한 성향은 여성의 자녀 양육을 강조하는 사회적 기대의 차이로 인해 더욱 강화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정은 도움행동의 성차에 의해 지지된다. 도움행동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도움행동 점수가 더 높았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도움행동의 하위 영역 중 조력, 친절, 동정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반면, 증여와 협력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돌봄 행동(조력) 혹은 정서적인 관여(친절, 동정)를 강화하는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학년에 따라 공감, 죄책감, 감사 및 도움행동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감은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타인의 사고,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아동의 사회인지적(social cognitive) 발달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Blakemore & Choudhury, 2006; Miller, 2010). 구체적 조작기에 비해 형식적 조작기는 타인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으며,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 다양한 가설적 사고를 할 수 있으므로 여러 대안들과 그에 따른 결과까지도 탐색이 가능해진다(selman, 1980,1981). 이러한 사회인지적 발달은 자신과 타인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타인의 감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한편, 죄책감은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

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에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 죄책감을 경험하는 반면, 연령이 어린 아동일수록 단순한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많은 것(Thompson, 1989; Williams & Bybee, 1994; Tangney & Dearing, 2002)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어린 아동의 경우 논리적 추론의 수준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부정확한 귀인으로 인해 부정적 행동 혹은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자신에게 돌리는 성향이 높은 것에도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감사성향 또한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감사성향은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친사회적 도움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므로, 독립적 경향이 강한 청소년에 비해 생활 전반에 걸쳐 타인의 돌봄을 받는 어린 아동이 이를 인식할 기회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 단계의 특성에 따른 감사성향의 차이는 추후 관련 연구가 축적된 후에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도움행동의 경우,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Staub, 1970; Midlarsky & Hannah, 1985; Eisenberg & Mussen, 1989), 아동은 단순히 도움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도움 제공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신의 도움행동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사고(예,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 등 사회적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종교 유무에 따라 공감, 감사성향 및 도움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공감, 감사성향 및 도움행동 모두 높은 것으로 드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들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가리킨다(Hunsberger & Platonowa, 1986; Kim, 2006; kwon, 2006). 이러한 결과들은 절대자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이타성을 강조하는 종교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의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정서는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도움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공감적 관심으로 밝혀졌다. 공감적 관심은 공감의 정서적 요소로서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에 대해 불편과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Davis, 1980). 초등학생은 타인에 대한 온정, 연민, 관심 등의 정서를 경험하는 공감적 관심이 높을수록 조력, 증여, 협력, 친절 및 동정의 도움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Hoffman(1982)의 공감 발달 이론에 부합되는데, 어린 아동은 자신과 타인의 분리에 대한 인식 없이 정서적 전달에 의한 공감을 경험하기 쉬우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타인과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발달하게 되

면서 보다 성숙한 공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중학생의 경우, 도움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죄책감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은 개인의 내적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느끼는 반성, 긴장, 후회, 자책 등의 죄책감 경향이 높을수록 도움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움행동을 촉발시키는 변인이 타인의 관점 취하기 등과 같은 적극적 요인이기보다 자신의 내적 기준의 위반 여부와 같은 소극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더욱이 청소년기 초기에 죄책감의 내적 기준이 발달하는 과도기적 시기임을 고려할 때(Eisenberg, 2000), 자발적인 도움행동의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반면, 이러한 결과는 죄책감이 도움행동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도움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관점 취하기로 나타났다. 공감의 인지적 요소인 관점 취하기는 타인의 다양한 심리적 관점에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Davis, 1980; Song & Lee, 2010). 이러한 청소년기 후기의 사회적 조망수용능력의 발달은 도움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보여지며, 아동의 경우 공감적 관심이 도움행동을 가장 잘 예측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공감의 인지적 성향 중 하나인 상상하기는 초등학교의 경우 도움행동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유의한 변인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어린 아동에 비해 청소년이 도움행동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상상하기와 같이 복잡한 수준의 인지적 재구성 작업을 활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움행동의 하위 영역인 증여와 협력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감사성향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감사성향은 타인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행동경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McCullough et al., 2001), 본 연구 결과 이러한 감사성향이 특히 타인을 돕기 위해 자신의 것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증여 행동과 타인과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돕는 협력 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아동과 청소년의 감사성향은 공감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적인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과 청소년의 공감은 도움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감사성향을 통해 도움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도움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공감 능력을 훈련하는 것과 더불어 감사성향을 높이는 활동(예, 감사 일지 기록하기, 타임 라인 만들기)을 병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아동과 청소년의 감사성향은 죄책감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과 청소년의 죄책감은 도움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감사성향을 통해 도움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죄책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특성을 가진다(Tangney & Dearing, 2002). 이와 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초래되는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는 죄책감 성향은 타인의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죄책감은 타인에 대한 의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타인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는 감사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타인의 필요성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죄책감의 부정적 기능과 달리 죄책감의 긍정적 측면을 새로이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도움행동 혹은 이타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도덕성의 인지적 요소인 도덕적 사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상대적으로 도덕적 정서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긍정적 및 부정적 도덕적 정서와 도움행동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적 차이에 따라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정서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감사성향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 영성, 심리적 안녕감 등 정신건강에 관한 것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는 감사성향을 도덕적 정서로 규정하여 도움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정서 외에 상황적, 인지적 요인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달 단계별로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만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특히 도움행동의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정, 관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

- kwon, S. J.(2006).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gratitude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1)*, 177-190.
- Kim, T. W.(2006). *A study on self-esteem, problem behavior, and altruistic behavior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Ryu, S. Y.(1998). *The study of relation of guilt and sham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o psychological symptom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high school adolescents and juvenile delinqu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ark, S. Y.(2012).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emotion, individualism-collectivism cultural disposition and prosocial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Song, K. H., & Lee, S. Y.(2010). The relationship among theory of mind, proactive bullying and defending behaviors in adolescents: mediation effects of moral disengagement and moral emotions. *The Korea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105-124.
- An, J. Y.(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cceptance and both children's empathy and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solving skil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Cheon, Y. O.(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health and adjustment according to the degree of egoism and altruism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 Andrew J. H., Jessica B. T., & Karen B.(2012). Guilt, empathy, and apology. *Public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3(7), 917-922.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r-Tal, D.(1979). Further evidence regarding the sequential development of helping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 Development, ED, 180-592.
- Bar-Tal, D., & Raviv, A.(1979). Consistency of helping behavior measures. *Child Development*, 50, 1235-1238.
- Bar-Tal, D., & Raviv, A.(1982). A cognitive learning model of helping behavior development: Possible implications and application. In N. Eisenberg(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Y.: Academic Press.
- Blakemore, S. J., & Choudhury S.(2006). Development of the adolescent brain: implications for executive function an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 296-312.
- Champman, M., Zahn-Waxker, C., Cooperman, G., & Iannotti, R.(1987). Empathy and responsibility in the motivation of children's help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3, 140-145.
- Davis, M. H.(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103.
- Damon W.(1988). *The Moral Child: Nurturing Children's Natural Growth*, N.Y.: The Free Press.
- Denham, S. A.(1986). Social cognition, prosocial behavior and emotion in preschoolers: Contextual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7, 194-201.
- Edwards, C. P., & Ha, Y. H.(2005). The effect of parents attachment, socioeconomic status, and perspective-taking on early adolescents' prosocial behavior toward parents and sibling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1(1), 43-57.
- Eisenberg, N.(2000). Emotion, regulation and moral development. *Annual Review Psychology*, 51, 665-697.
- Eisenberg, N., Carlo, G., Murphy, B., Van Court, P.(1995) Prosocial development in late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6, 1179-1197.
- Eisenberg, N., Lennon, R., Beller, R., & Mathy, M.(1987). Prosocial development in middle childhood: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3, 712-718.
- Eisenberg, N., Miller, P. A., Shell, R., McNally, S., & Shea, C.(1991). Prosoci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7, 849-857.
- Eisenberg, N., & Fabes, R. A.(1991). Prosocial behavior and empathy: a multimethod, developmental perspective. *Reviews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51, 665-697.
- Eisenberg, N., & Fabes, R. A.(1995). The relation of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to social competence, regulation and emotionality. *Cognition*, 9, 203-229.
- Eisenberg, N., & Mussen, P. H.(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oh, J. J., Bono, G., & Emmons, R.(2010). Being grateful is beyond good manners: gratitude and motivation to contribute to society among early adole-

- scent. *Motivation and Emotion*, 34, 144-157.
- Hoffman, M. L.(1982).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empathy and guilt, In N. Eisenberg (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Y.: Academic Press.
- Hoffman, M. L.(1983). Affective and cognitive processes in moral internalization. In E. T. Higgins, D. N. Ruble, & W. W. Hartup (Eds.). *Social 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A Sociocultural Perspective*. 236-74.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fman, M. L.(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nsberger, B., & Platonowa, E.(1986). Religion and helping charitable causes. *The Journal of Psychology*, 120, 517-528.
- Kashdan, T. B., Uswatte, G., & Julian, T.(2006). Gratitude and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in vietnam war veterans. *Behavior Research an Therapy*, 44, 177-199.
- Leith, K., Baumeister, R. F.(1998). Empathy, shame, guilt and narratives of interpersonal conflicts: guilt-prone people are better at perspective talking. *Journal of Personality*, 66(1), 1-37
- Lesure-Lester, G. E.(2000). Relation between empathy and aggression and behavior compliance among abused group home youth.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1(2), 153-161.
- Lickona, T.(2001). What is the good character? and how can we develop It is the our children? *Reclaiming Children and Youth*, 9(4), 239-251.
- Linda. R.(2011). Gender differences in empathy. *psychology of empathy*, 9, 221-234.
- Loudin, J. L., Loukas, A., & Robinson, S.(2003). Relational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empathy. *Aggressive Behavior*, 29, 430-439.
- Mestre, M. V., Samper, P., Dolores, M., & Tur, A. M.(2009). Are Women More Empathetic than Men? A Longitudinal Study in Adolescence.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12, 76-83.
- McCullough, M. E., & Tsang, J.(2004). Parent of virtues? The prosocial contours of gratitude. In R. A. Emmons & M. E. McCullough(Eds). *The Psychology of Gratitude* (123-141). N.Y.: Oxford University Press.
- McCullough, M. E., Emmons, R. A., & Tsang, J.(2002).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112-127.
- McCullough, M. E., Kilpatrick, S. D., Emmons, R. A., & Larson, D. B.(2001). Is gratitude a moral affect? *Psychological Bulletin*, 127(2), 249-266.
- Midlarsky, E., & Hannah, M.(1985). Competence, reticence, and helping by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534-541.
- Miller, S. A.(2010). Social-cognitive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Encyclopedia 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2010, 1-5.
- Reysen, S., & Ganz, E.(2006). Gender differences in helping in six U.S. cities.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8, 63-67.
- Selman, R. L.(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es*. N.Y.: Academic Press.
- Selman, R. L.(1981). The child as a friendship philosopher: A case study in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In S. R. Asher & J. M. Gottman (Eds.),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friendship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ub, E.(1970). A child in distress: The influence of age and number of witnesses on children's attempts to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130-140.
- Tangney, J. P.(1991). Moral affect: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8-607.
- Tangney, J. P.(1998). How does guilt differ from shame? In J. Byee. (Ed), *Guilt and children*, 1-17. San Diego: Academic Press.
- Tangney, J. P., & Dearing, R .L.(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London: Guilford Press.
- Tangney, J. P., & Fischer, K. W.(1995). Self-conscious emotions and the affect revolution: frame work and overview. In Tangney, J. P., & Fisher, K. W.(Eds.). *Self-conscious emotions* (pp.3-22). N.Y.: Guilford Press.
- Tangney, J. P., Stuewig, J., & Mashek, D. J.(2007). Moral emotions and moral behavio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345-372.
- Tangney, J. P., Wagner, P. E., & Gramzow, R.(1989). 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TOSCA), Fairfax, VA:
George Mason University.

- Thompson, R. A.(1989). Causal attributions and children's emotional understanding, In C. Saarni & P. L. Harris(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pp.117-150).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ommsdorff, G., Friedlmier, W., & Mayer, B.(2007). Sympathy, distress, and prosocial behavior of preschool children in four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3), 284-293.
- Vasta, R., Miller, S., & Ellis, S.(2004). *Child Psychology*(4th ed). New Jersey : John Wiley & Sons, Inc.
- Walker, L. J., & Pitts, R. C.(1998) Naturalistic conceptions of moral matu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4, 403-419.
- Williams, C., & Bybee, J.(1994). What do children feel guilty about? Developmental and gender dif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617-623.
- Zahn-Waxler, C., Radke-Yarrow M., Wagner, E., & Chapman, M.(1992). Development of concern for 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26-136.

- 접수일 : 2012년 09월 05일
- 심사일 : 2012년 10월 22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11월 19일